

소년범 집단이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보이는 문제해결 특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 근 영 · 조 선 미 · 정 영 기

Situational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in Adolescent Offenders

Keon-Young Park, Sun-Mi Cho and Young-Ki Chung

Department of Psychiatry and Behavioral Sciences,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Delinquent behavior is known as situation specific skill deficits in solving social problems.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in problem solving skills between juvenile delinquents (N=31) and nondelinquents (N=28) in social conflict situations. The social problems varied depending on the interpersonal context of conflict with peers, teachers, and parents and on the intent of the others in conflict such as ambiguous frustration and hostile provo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alternative solutions generated by subjects with general intelligence covaried out. Delinquents had a different pattern of solving social conflict situation problems: Delinquents were likely to employ more physical and verbal aggression in conflict with peers and other's hostile intent; to adopt more negative direct action with teachers and in frustration; and to propose fewer verbal assertive solutions for hostile teacher situations. Nondelinquents tended to produce more nonconfrontative or compromising solutions in peer conflicts and during frustration; and to employ more verbal assertion with teacher conflicts and during frustration. However, reasoning ability in the nonconflict situations activated by script knowledg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Implications are that cognitive interventions with adolescent offenders migh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ituational factors in problem-solving skills. (Ajou Med J 1998; 3(1): 54~61)

Key Words: Adolescent offenders, Problem-solving, Social cognition, Aggression

서 론

어떤 사람들은 보다 나은 적응적인 행동을 하는데 요구되는 문제해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적응적인 행동을 한다고 제안된 바 있으며,¹ 비행도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의 문제해결 기술 결핍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² 예를 들어, 비행청소년의 사회인지과정 발달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비행청소년들이 도덕적 추론에서 발달 지체를 보인다고 하며,³⁻⁴ 10대 초반(10~11세)의 비행청소년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상위인지(meta-cognition)에 관한 지식양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⁵ 또한, 다른 사람들과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인간(interpersonal)의 문제해결기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인지 기술이 필요한데,⁶ 소외나 공격적 행동과 같은 사회적으로 부적응을 보이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대인간 문제해결에서 더 적은 수의 대안밖에는 생각해 내지 못했다고 한다.⁷

저자연락처: 박근영, (442-7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과학교실, Tel (0331) 219-5809, Fax: (0331) 219-6087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31th Annual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Convention, Miami(1997, November).

법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공격성을 매개하는 인지적 변인(cognitive mediators)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

으며,^{8~9} 공격성은 청소년기에 약물사용이나 행동장애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졌다.¹⁰ 아동기부터 성인 초기에 이르기까지 남성의 공격성을 연구한 16개의 종단적 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시간이 경과해도 공격성은 지속적인 안정성이 있으며,¹¹ 비록 모든 청소년들이 보이는 공격적 행동의 절대수준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한다 하더라도, 공격적 행동의 상대적 순위는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¹²

공격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인지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대략 사회적 자극을 처리하는 정보처리 과정(information processing)과 인지의 내용(content)을 다루는 두가지의 접근방식을 취해왔다.

정보처리에 관련된 연구들은 사회적 문제해결 과정과 이러한 과정이 공격적 행동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Dodge(1986)¹³는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1) 사회적 단서의 부호화, (2) 단서에 대한 표상과 해석, (3) 반응탐색, (4) 반응결정, (5) 실행이라는 5단계가 순차적으로 개입된다는 모델(5-step sequential model)을 제시하고, 공격적 행동은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개입되는 이러한 인지적 단계에 부분적이거나 전면적인 결함이나 편파(bias)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아동이나 청소년은 비공격적인 비교집단에 비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의 의도를 해석하기 이전에 더 적은 수의 대인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거나,¹⁴ 문제해결을 위한 추가정보를 거의 요구하지 않으며,⁸ 적은 수의 대안 밖에는 생각해 내지 못하고,⁷ 행동으로 인한 결과도 다양하게 생각하지 못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단계별로 세심하게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인 수단-목표 사고(meansends thinking)에 더 많은 결함이 있다.^{15~16} 또한, 자기중심적인 조망을 취하며,¹⁷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적대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귀인시키면서 사회적 문제를 적대적인 방식으로 정의하고, 적대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편파(hostile attributional bias)가 있으며,^{14,18~20} 정서적 각성상태를 분노로 잘못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는^{13,21,22} 등의 보고가 있다.

한편, 인지 내용에 관련된 연구는 Bandura(1986)²³의 사회학습 이론에 관련된 것으로 공격적 행동을 사용하도록 하는 신념들을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상황에서 공격성이 수용될 수 있다(legitimacy)고 생각한다면,²⁴ 공격적 행동을 하므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²⁵ 공격성이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또래집단에서 지위를 유지시키도록 해준다고 믿거나,²⁶ 어떤 사람이 해를 당하는 경우 희생자는 희생당할 만한 이유가 있고, 공격적 행동의 희생자가 별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²⁶ 믿는 등의 신념(schema or beliefs)이 있다.

이러한 정보처리 과정이나 신념은 사회인지과정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공격적인 아동이나 청소년이 대안 산출량이 적다는 양적인 차이뿐 아니라,⁸ 생성해 내는 대안의 내용이 다르다는 질적인 차이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보다 통합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소년집단과 일반 소년집단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 주관식 문제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양이 다를 뿐 아니라, 최선책으로 고려하는 내용이 다르며, 객관식 문제에서 양적인 차이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최선책으로 고려하는 내용은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설명할 때, 특정 사고가 자주 활성화되어서 쉽게 인출된다는 특출성의 효과(salient effect)로 설명하려 하는 것도²⁷ 공격적 행동에 관한 인지 내용과 과정을 통합한 설명을 하려는 시도로 사료된다.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활성화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응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구체적인 변인이 고려된 문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Shure와 Spivack(1972)²⁸은 문제해결의 내용보다는 처리과정이 중요하며, 문제해결 처리과정은 특수한 상황에 연관되어 있는 능력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능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문제해결에서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이한 임상집단 각각에 해당하는 특수한 문제해결을 평가하고, 문제해결기술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의 효과에 민감한 도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9~30} 공격성에 관한 일부 연구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예로 Elias, Larcen, Zlotlow와 Chinsky(1978)³¹는 아동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대상이 누구인지, 즉 또래 집단인지 선생님인지에 따라서 질적으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제안했으며, Dodge, MaClasky와 Fedman(1985)³²은 상대방이 적대감을 표현하거나 거절하는 것과 같은 상황적인 변인에 의해서도 문제해결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또래, 선생님, 부모라는 세가지 다른 대인관계 맥락과 갈등 상황에서, 의도가 적대적이거나 혹은 모호하게 좌절스러운 상황인가의 두가지 다른 의도로 지각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서,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가를 비교할 수 있는 Problem-Solving Measure for Conflict: PSM-C(Lochman과 Lampron, 1986)²¹를 평가도구로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것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폭력적인 소년범 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문제 해결책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전체 양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데, 이는 PSM-C에서 각 집단이 제안하는 대안의 양을 비교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문제해결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

려진 지능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여전히 이러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상황에 따라, 즉 갈등의 대상이나 지각되는 상대방의 의도에 따라서 비교집단간에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대안의 패턴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보고자 하는데, 이는 PSM-C에서 해결책의 내용을 분류하는 반응범주에 근거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3) 적대감이나 좌절을 유발시키지 않는 일반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도식을 활성화해서 추론하는데도 비교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하는데, 이는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사회적 상황을 문제로 제시해서 두 집단간에 추론으로 획득한 점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피험자 선정에 있어서는, 만약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연구집단으로 사용하여 정상인 집단과 비교할 경우, 수감자들에게는 교도소라는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 유발요인이며, 일탈된 집단에서 사회화 되는 영향(deviant socializing influence)을 받는 등의 다른 오염 변인이 있을 수 있어서, 결과 해석에 또다른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수원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범을 연구집단으로 사용했다.

방 법

1. 대상과 절차

1996년 9월부터 1997년 1월까지 기간중, 수원 보호관찰소에서 감찰을 받고 있던 남자 소년범 31명을 연구집단으로 사용하였는데, 평균연령은 16.9세(SD=0.94)였으며, 범죄 내용은 폭력, 방화, 강간, 강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기간중 수원과 주변 경기지방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범법경험이 없는 남학생 지원자 28명을 비교집단으로 사용하였는데, 평균연령은 16.1세(SD=1.02)였다. 각 검사는 3~5명의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지필검사로 실시되었다.

2. 평가도구

1) 사회적 갈등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평가지(Problem-Solving Measure for Conflict: PSM-C): Shure & Spivack (1972)²⁸의 Means-Ends Test를 수정한 것으로, Lochman & Lampron(1986),²¹ Lochman, Lampron, Rabiner(1989),²⁷ Lochman & Dodge(1994)⁹등이 사회적 문제해결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이다. 본 평가지는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이 또래, 선생님, 부모로 구분되는 3가지 대인관계 맥락으로 나누어지고, 각 대상에 따라서 상대방의 의도

가 모호하지만 좌절스러운 상황인가, 혹은 적대감을 일으키는 것인가에 따라 2가지 상황으로 구분되는 6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제는 처음에 문제상황을 기술하고, 이야기의 중간은 제시되지 않으며, 결국은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끝맺는데, 각 이야기의 중간부분을 피검자가 최선책으로 여기는 내용으로 완성하고 나서, 생각해 낼수 있는 다른 모든 줄거리를 답지에 적는 것이다. 문제 하나를 예를 들어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점심시간에 철수의 친구가 철수의 공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았습니. 철수가 방과후에 학교를 나설 때는 다른 소년들이 철수의 축구공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 철수는 방과후에 바로 집으로 갈 작정이었는데, 자기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결국 철수는 자기 축구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처음에 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중에는 공을 가지고 집으로 갔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오르는 답을 써 주십시오.

PSM-C의 채점 체계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a) 전체 대안 산출량, (b) 내용채점 범주의 두가지를 사용하였다. 내용채점 범주로는 (1)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는가와 관련된 도움 청하기(Help-Seeking : HS), (2)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회피하려 하는 맞닥뜨리지 않기(Non-Confrontation : NC), (3) 때리거나 싸우는 등의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Physical Aggression : PAG), (4)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말을 하는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 : VAG), (5) 등장 인물 모두가 원하는 바의 것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절충(Compromise : C), (6)결과를 얻기위해 물건이나 칭찬을 제공하는 거래(Bargaining : B), (7)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언어적 주장(Verbal Assertion : VAS), (8) 때를 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부정적인 언어적 주장(Negative Verbal Assertion : VA-), (9)공격적이지 않은 비언어적 행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과정을 취하는 직접적인 행동(Direct Action : DA), (10) 절도, 불복종과 같은 반사회적이고 사회적 승인을 얻지 못하는 부정적인 비언어적 행동(Negative Direct Action : DA-)의 10가지가 있다. 두 집단이 각 문제 상황에 따라 어떤 범주에 속하는 해결책을 더 많이 생성하는가를 평가하였다.

2) 진단성 지능검사(이상로, 서봉연)³⁵: 이 검사는 기본적으로는 정보처리론적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지각 속도 검사, 청취기억 검사, 언어추리 검사, 상황추리 검사, 산문추리 검사, 그림행렬 검사, 산수추리 검사, 어휘력 검사, 공간 시각화 검사의 9가지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소검사 중에서 상황추리 검사는 기존의 지능

검사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행동대본 지식 (scriptal knowledge)을 활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단순히 구문론적인 지식기반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산문추리 검사와는 달리 사회집단 성원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행동대본을 활용하는 것이다. 소검사간 혹은 전체 지능과 소검사간 상관을 산출해본 결과, 상황추리 검사는 다른 소검사들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상황추리 검사에서 제시된 문항이 PSM-C와는 달리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사회적 상황을 추리하는 것이어서, 상황추리검사에서 두 집단간의 수행결과 차이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상황추리 검사의 문항중 일부를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매일 그곳에 간다. 오늘도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에는 벌써 ()가 시작되고 있었다.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제자리에 앉아 있고 앞쪽에는 한 남자가 벽 쪽으로 () 무언가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은 () 그것을 () 있었다.

3. 자료분석

두 집단간 대안 생성량에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t-검증을 사용하였는데, 대안산출은 지능과 상관이 높을 수 있으므로, 지능지수를 공변량으로 고려하여 지능의 효과를 제외시켰다.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어떤 해결책을 빈번히 사용하는 가를 보기위해서 log-linear analysis를 한 후에, 각 조건별로 나누어서 다시 X²검증을 실시했다. 또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사회적 상황 추리 검사에서 두 집단간 평균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t-검증을 사용했다.

결 과

제시된 전체 대안의 수와 평균 지능지수를 Table 1에 집단별로 제시했는데, 소년범 집단이 일반 청소년집단에 비해서 더 적은 수의 대안을 제시했으며(t(1,56)= 2.79,

Table 1. Comparison of intelligent coefficient and number of alternative solutions

	소년범 집단 (N=31) 평균 (표준편차)	통제 집단 (N=28) 평균 (표준편차)	t
제시된 해결책의 양	9.77 (4.21)	13.84 (5.77)	2.79 **
평균 지능지수	86.48 (7.69)	98.22 (15.12)	3.64 ***

P<0.01, *P<0.001

Table 2. Frequency of solutions according to the content categories

의도 대상 집단	Frustration						Hostile					
	또래		선생님		부모		또래		선생님		부모	
	E - C	E - C	E - C	E - C	E - C	E - C	E - C	E - C	E - C	E - C	E - C	
HS	2	1	1	1	2	2	2	3	1	1	0	2
NC	15	32*	0	7	1	2	3	7	9	5	2	5
PAG	2	6	0	0	0	0	34	16*	0	0	0	0
VAG	1	1	0	0	0	1	29	10*	0	2	0	0
C	5	18*	1	2	1	3	1	0	0	0	1	2
B	0	3	2	3	6	9	3	0	0	0	1	2
VAS	18	19	1	12*	8	6	6	8	27	44*	26	23
VAS-	3	0	4	7	9	17	0	5	8	8	7	10
DA	3	1	27	24	14	13	0	1	0	0	2	1
DA-	3	3	16	2*	10	14	1	6	3	0	3	5

E: Delinquents, C: Nondelinquents, HS: Help-Seeking, NC: Non-Confrontation, PAG: Physical Aggression, VAG: Verbal Aggression, C: Compromise, B: Bargaining, VAS: Verbal Assertion, VA-: Negative Verbal Assertion, DA: Direct Action, DA-: Negative Direct Action; *<0.10 (X² test)

$P < 0.01$], 평균 지능지수도 더 낮았다($t(1,56)=3.64, P < 0.001$). 지능지수와 대안산출량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찰되었지만($r(58)=0.29, P=0.025$), 지능지수를 공변인으로 고려해서 효과를 제거해준 후에도 제시한 대안의 숫자에는 차이가 있었다($F(1,55)=3.89, P < 0.05$).

Table 2에서는 각 집단이 갈등 상황에서 대상이나 지각되는 의도에 따라 제시한 해결책을 내용분류 범주별로 제시했다. 의도, 대상, 집단 3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X^2(2)=9.65, P < 0.01$), 각 집단이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문제 해결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년범 집단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도가 적대적이라고 지각할 때 신체적·언어적 공격성(PAG, AG)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X^2(1)=2.79, p < 0.10$), 선생님이나 모호한 좌절을 주는 경우에 부정적인 직접적 행동(DA-)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고($X^2(1)=3.04, p < 0.10$), 적대적인 선생님과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자기주장(VAS)을 하지 않는 경향($X^2(1)=2.84, p < 0.1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격적인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 또래 사이에서 욕구가 좌절되는 갈등이 발생하면 직접 맞닥뜨리지 않으려는 경향(NC)이 있고($X^2(1)=3.74, p < 0.10$) 타협적인 절충안(C)을 더욱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X^2(1)=2.72, p < 0.10$), 선생님과 관계에서 좌절이 생기면 자기 주장(VAS)을 더욱 많이 하는 경향($X^2(1)=2.90, p < 0.1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검사 소검사들의 점수를 변량분석한 결과 집단과 소검사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서($F(8,40)=5.79, p < 0.001$), 소검사에서 따라 소년범집단과 통제집단의 수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지능검사의 각 소검사별 점수를 집단간에 사후 비교하여 제시한 것으로, 상황추리 검사와 공간 시각화

검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지각속도 검사에서는 소년범의 수행이 더 우수한 편이었으며, 그외 다른 소검사들에서는 소년범 집단의 수행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소년범 집단이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비폭력적 비교집단에 비해서 어떤 문제해결 특성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 소년범 집단은 문제 상황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의 양이 적고, 갈등의 대상이나 의도가 다르게 지각되는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의 해결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좌절이나 적개심과 같은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사회적 상황추리 검사에서 일반적인 사회적 대본 지식 양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 각각의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두 집단간의 대안 제시량의 차이는, 지능의 차이에 의한 효과를 공변량으로 제거한 후에도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격적이거나 범죄행위를 한 집단에서 대안생성량이 더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 연구^{33,34}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효율적인 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요소는 대인관계 문제에서 다양하고 많은 양의 해결책을 생성하는 능력이며, 만약 충분히 많은 해결책을 생각해 낼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도 그 중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실제로 가상적인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 다양하고 많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사회적 적응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대안 생성량이 적다는 특성이 반복적으로 검

Table 3. Comparison of mean score of subscales from intelligence test

	소년범 집단 (N=31) 평균 (표준편차)	통제 집단 (N=28) 평균 (표준편차)	t
지각 속도	39.09 (30.06)	20.59 (10.71)	-3.20 **
청취 기억	20.75 (22.72)	35.29 (24.85)	2.33 *
언어 추리	24.93 (16.15)	56.37 (29.18)	4.97 ***
상황 추리	34.09 (23.53)	44.22 (31.31)	1.38
산문 추리	30.09 (24.95)	56.81 (31.34)	3.48 ***
그림 행렬	32.38 (18.81)	55.11 (32.28)	3.21 **
산수 추리	31.38 (17.19)	58.33 (27.15)	4.44 ***
어휘력	33.24 (24.68)	56.18 (32.24)	3.06 **
공간 시각화	38.76 (33.53)	55.49 (36.00)	1.83

* $P < 0.05$. ** $P < 0.01$. *** $P < 0.001$

증되고 있고, 이는 사회적 상황에 관련된 정보처리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는 하지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은 다양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를들면, 문제해결 능력 자체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며, 이 중에서 어떤 요인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혹은 일반적인 지식의 양에 차이가 있는지, 혹은 특이성, 활성화등의 일반적인 인지 기제와 관련된 또다른 편파 때문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이러한 양적인 접근 만으로는 인지 내용의 구체적인 특징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적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맥락이나 의도에 따라 소년범 집단이 다른 문제해결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Lochman & Lampron(1986)²¹은 공격적인 아동은 의도가 적대적이고 또래집단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언어적 주장(VAS)을 더 적게 하고, 적대적인 선생님 상황에서는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행동(DA)을 더 많이 하고, 또래집단과 갈등이 있을 때 신체적 공격(PAG)을 첫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고, Lochman & Dodge(1994)⁹는 폭력적인 아동은 절충안(C) 제시나 도움청하기(HS)를 덜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공격적인 소년들은 분명하게 적대적인 상황에서 가장 전형적인 사회적 문제해결 결함을 보였고,³⁵ 문제해결 기술은 정서적으로 흥분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의도가 적대적이라고 지각되는 경우에 더욱 왜곡되고 결함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12,36}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 집단이 의도가 적대적이라고 지각되는 또래집단과의 갈등상황에서 신체적, 언어적 공격(PAG, VAG)을 해결책으로 택하는 경향이 있었고, 모호한 좌절을 주는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는 절충안(C) 사용을 더 조금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선생님과 관계에서는 의도에 관계없이 언어적인 주장(VAS)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부분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다만 도움 청하기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던 것이다.²⁷

셋째,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사회적인 스크립트 지식을 활용해서 사회적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지능검사에서 다른 소검사 평균 점수를 보면, 어휘력, 언어추리, 산문추리, 산수추리와 같이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능들은 소년범의 수행이 저조한 반면, 교육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특정 영역의 지식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간시각화 능력과 지각속도에서는 낮은 수행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PSM-C에서도 사회적 갈등상황 중에서 대상이 부모인 경우는 두 집단간에 문제해결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해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 특성들은, 공격적인 소년범들이 보이는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결함이나 편파가 영역 일반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특정 상황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은 소년범 집단이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문제해결시 보이는 왜곡이나 결함을 인지-행동적으로 교정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 했듯이, 범죄나 공격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검증된 요소들에 대한 설명 조차도 상당히 모호한 점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범법행위나 공격성에 개입되는 요인이 다양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으로는 보다 분명한 설명을 위해서는 피검자 선정시 범죄유형에 따른 연구대상 분류가 세밀히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문제해결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통제된 연구도구가 필요하며, 특히 문제해결의 경우 문제의 특성을 자세히 규명하고 처리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McFall RM: Behavioral training: A skill-acquisition approach to clinical problems. Mo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1976
2. Freedman BJ, Rosenthal L, Donahoe CP, Schlundt DG and Macfall RM: A social behavioral analysis of skill deficits in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adolescent bo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6): 1448-1462, 1978
3. Chandler MJ: Egocentrism and antisocial behavior, the assessment and training of social perspective-taking skills. *Developmental Psychology* 9: 327-332, 1973
4. Hains AA and Miller DJ: Moral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7: 21-35, 1980
5. Hains AA and Ryan EB: The development of social cognitive processes among juvenile delinquents and nondelinquent peers. *Child Development* 53: 1536-1544, 1983
6. Hobbs SA, Moguin LE, Tyroler M and Lahey BB: Cognitive behavior therapy with children: Has clinical utilities been demonstrated? *Psychological Bulletin* 87: 147-165, 1980
7. Richard BA and Dodge KA: Social maladjustment and problem solving in school ag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2): 226-233, 1982
8. Slaby RG and Guerra NG: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 in adolescent offend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4(4): 580-588, 1988
9. Lochman JE and Dodge KA: Social-cognitive processes of severely violent, moderately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bo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2): 366-374, 1994
 10. Lochman JE: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with aggressive boys: three-year follow-up and preventive effe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3): 426-432, 1992
 11. Olweus D: Stability of aggressive behavior patterns in male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852-875, 1975
 12. Lochman E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ssessment of aggressive adolescents. *The aggressive adolescent: Clinical perspectives* (ed. Keith CR) New York: Free Press, 1984, pp17-62
 13. Dodge KA: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8. In Cognitive perspectives on children's soci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ed. Perlmutter M) Hillsdale, NJ: Erlbaum, 1986, pp77-125
 14. Dodge KA, Pettit GD, McClaskey CL and Brown MM: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 (2, Serial No. 213), 1986
 15. Platt JJ, Spivack G, Altmann N, Altmann D and Peizer SB: Adolescent problem-solving think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787-793, 1974
 16. Ford ME: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1982
 17. Short RJ and Simeonson RJ: Social cognition and aggression in delinquent adolescent males. *Adolescent* 21: 159-176, 1986
 18. Dodge KA and Frame CL: Social cognitive bias and deficits in 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55: 163-173, 1982
 19. Dodge KA and Newman JP: Biased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aggressive boy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375-379, 1981
 20. Graham S and Hudley C: Attributions of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African-American male early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9(3): 365-373, 1994
 21. Lochman JE and Lampron LB: Situational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and self-esteem of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boy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605-617, 1986
 22. Lochman JE, White KJ and Wayland KK: Cognitive-behavioral assessment and treatment with aggressive children. In *Therap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cognitive behavioral procedures* (ed. Kendall P) New York, Guilford Press, 1991
 23.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24. Parke RD and Slaby RG: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ed. Mussen PH & Hetherington EM) New York: Wiley, 1983, pp547-641
 25. Perry RD, Perry LC and Rasmussen P: Cognitive social mediators of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7: 700-711, 1986
 26. Bandura A: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27. Lochman JE, Lampron LB and Rabiner DL: Format differences and salience effects in the social problem-solving assessment of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boy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3): 230-236, 1989
 28. Shure MB and Spivack G: Means-ends thinking, adjustment and social class among elementary-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8: 348-350, 1972
 29. Butler L and Meichenbaum D: The assessment of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kills. In *Assessment strategies for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ed. Kendall PC & Hollon SD) New York: Academic Press, 1981, pp197-225
 30. Krasnor LR and Rubin KH: The assessment of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in young children. In *Cognitive assessment* (ed. Merluzzi TV, Glass CR & Genest M) New York: Guilford Press, 1981, pp452-476
 31. Elias MJ, Larcen SW, Zlotlow SF and Chinsky JM: An innovative measure of children's cognitions in problematic interpersonal situ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vention, Toronto.
 32. Dodge KA, McClasky CL and Fedman E: A situational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344-353, 1985
 33. Spivack G, Platt JJ and Shure MB: *The problem solving approach to adjustment*, Washington: Jossey Bass, 1976
 34. Spivack G and Shure MB: *Social adjustment of young children: a cognitive approach to solving real life problems*. Washington: Jossey-Bass, 1974
 35. 이상로 및 서봉연: 진단성지능검사. 중앙적성출판소, 1996
-

부 록

사회적 갈등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평가지 (Problem-Solving Measure for Conflict)

문 제 1 : “점심시간에 철수의 친구가 철수의 공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방과후에 학교를 나갈 때, 다른 소년들이 철수의 축구공을 가지고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방과후에 바로 집으로 갈 작정이었는데, 자기 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빈칸). 결국 철수는 자기 축구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중에는 공을 가지고 집으로 갔을까요?

문 제 2 :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리둥절 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처음에 떠들기 시작한 것을 영수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화가난 담임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영수를 큰소리로 꾸짖으면서, ‘허구한날 말썽만 부린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영수는 너무나 분했습니다. (빈칸) 선생님이 영수가 떠들기 시작했다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처음에 선생님께 야단을 맞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야단을 맞지 않게 되었을까요?

문 제 3 : 병철이는 토요일날 박람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병철이에게 오후 내내 집안일을 거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빈칸). 병철이는 박람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철이가 박람회에 무척 가고 싶어하다가, 박람회에 가서 즐겁게 지내게 되기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 제 4 : 어느날 정현이가 다른 아이들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녀석이 정현이에게 야비한 욕을 하면서 놀렸습니다. 정현이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욕을 한 녀석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빈칸). 그 애는 이제는 정현이를 더 이상 놀리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애가 정현이를 괴롭혔는데, 마침내 놀리지 않게 되기 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문 제 5 : 상우의 선생님이 상우에게 지난번 수학시험 점수가 형편 없고, 숙제를 전혀 해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상우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축구부에서 축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칸). 상우는 축구부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상우가 수학 점수가 형편 없어서 축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축구부에서 축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문 제 6 : 태식이 친구 집에서 15분 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태식의 부모님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사실 태식은 친구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느라고 늦었습니다. 부모님이 화가나서 태식이 늦은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연락도 없이 늦게 왔으니까, 3주간 외출을 금지 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늦게 와도 부모님이 그렇게 심한 벌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태식은 부모님에게 몹시 화가 났습니다. (빈칸). 태식은 외출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태식이 외출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외출을 허락 하셨을까요?